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정종해 보성군수

"흙과 물 살려 청정 마케팅"

"사람이 모여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우수 인재를 교육시키는데 손색이 없는 명문 학교를 육성하는 것이 지역 발전의 지름길입니다"

정종해 보성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명문학교 육성을 통해 보성발전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정군수는 ▲고객만족 군정혁신 ▲도약하는 산업경제 ▲지역사랑 인재육성 ▲조화로운 지역개발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민선 4기 군정 5대 시책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군 예산에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 군 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해 왔다.

녹차, 세계적 명품 육성

보성군의 올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3% 증가한 2천392억원. 정군수는 "증가폭에 비해 실제로 시행되는 사업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중앙부처, 군의회와 협력관계를 돈독히 해 군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다.

정군수는 평소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흙과 물이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따라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생산단지와 기반을 확대하고 농수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위해 마케팅 중심의 농업 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다향보성'으로만 부각된 보성의 브랜드 파워를 녹차미인 보성쌀과 보성녹돈, 보성삼베, 벌교꼬막 등으로 다원화해 농어민 소득 증대와 연계시킨다는 복안이다.

정군수는 보성을 보성권역과 주암호 권역, 벌교권역 등 3대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특성을 살린 균

3대권역 나눠 균형개발

형개발계획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전국 최대 녹차 주산지 답게 녹차를 더욱 고급화해 세계적 명품으로 만들어가고 보성 북부지역 4개면과 조성·득량 평야지역에는 유채 특화작목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에 맞는 농·특산물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사회기반시설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보성~이양, 벌교~주암 도로 확포장 사업과 목포~보성~광양 고속도로 신설, 목포~보성 철도 개설 등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국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인재육성 역시 정군수가 관심을 갖는 분야다. 정군수는 "살맛나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모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재육성기금 50억원을 연말까지 확보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예절교실, 문화의 집 건립 등 청소년 관련 시설 확충에 힘쓰기로 했다"고

인재육성기금 50억 확보

말했다.

보성에서는 최근 의미있는 통계수치가 나왔다. 작년 한해 태어난 신생아가 재작년보다 14.6%나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은 신생아 숫자다. 보성군의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보성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6.3%나 돼 지속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군수는 "풍부한 자산이 보성에는 무궁무진하게 깔려 있다"며 "아름답고 경쟁력있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나주 배 신뢰 추락 이유 있었다

농협, '당도 측정기' 사용 않고 모양·크기 만으로 선별 출하

농민들, 등급 저하 우려 '선별기' 사용 반발

나주 지역 일부 조합들이 당도 측정없이 배를 출하해 '나주 배' 이미지와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주시는 지난 2000년부터 당도 측정 후 '공동출하' 조건으로 대당 2억원 상당의 당도 측정기능을 갖춘 선별기를 금천 배 농협과 세지·봉황·영산포 농협 등 7곳에 지원했다.

시는 또 배 15kg 1상자 당 1천원씩 연간 1억5천만원에 달하는 농산물 공동 선별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들 농협에서는 당도 측정 과정을 대부분 생략한 채 육안으로 모양과 크기 만을 평가, 등급을 매겨 출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 배에 대한 당도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등급 저하를 우려한 재배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이다.

그러나 육안으로 등급이 매겨지면서 당도가 떨어지는 배가 상급품 상자에 섞여 판매돼 나주 배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주시 역시 예산만 지원한 채 수박 겉핥기식 사후 관리를 해 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관련 농협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농협에서 당도 측정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면서 "명절 때라도 시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에 나서면 나주 배 품질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관리감독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나주 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바다의 보약' 강진만 굴 채취 한창

강진만 갯벌에서 겨울철 대표 수산물인 굴 수확이 한창이다. 청정 해역에서 생산되는 강진만 굴은 지방 함유량이 낮고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한 다이어트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전/북/소/식

고창 복분자 공동브랜드

'선연' 확정

고창 복분자의 공동 브랜드가 '선연(禪然)'으로 확정됐다.

고창군은 지난 11일 군청회의실에서 복분자 생산자단체와 지역농협장, 가공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 복분자 공동브랜드 및 마케팅 전략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새 공동브랜드 '선연'과 심벌 등을 공개했다.

'선연'은 고창 복분자 원산지이며 지역을 대표하는 선운산의 '선(禪)'과 자연의 '연(然)'을 합쳐 맑고 깨끗한 고창의 이미지를 담아낸 명칭이다.

브랜드 슬로건은 '선운산의 자연'이 채택됐으며, 고풍스런 서체의 심벌마크와 엠블렘, 군 캐릭터를 변형한 복분자 캐릭터, 한복 옷깃을 형상화한 브랜드 용기·포장 디자인도 선정됐다.

군은 타 지역 복분자 제품과 차별화하고 가공품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 및 유통 일원화를 통한 고창 복분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동브랜드를 추진해 왔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폐기물 업체 오면 안된다"

K산업, 광산 대산동 이전 추진에

주민들 "사전 협의도 없이…" 반발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인 K산업이 광주시 광산구 덕림동에서 함평군 나산면 인접지역인 광산구 대산동으로 이전을 추진,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함평군 나산면과 광산구 대산동·삼도동 주민들은 '폐기물시설지정 반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 12일 열린 'K산업 건축허가 관련 주민 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함평군 나산면 주민대표 이재영(48·나산면)씨는 "건축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설 경우 분진과 소음 피해, 상수원·농업용수 오염, 교통사고 위험 등을 안고 있다"며 "주민들과 사전협의 없이 폐기물처리 시설지구로 지정될 경우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전양복 광산구의회 의장은 "함평군과 사전협의도 없이 이전이 추진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이 생략된 것은 유감"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와 협의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 건축담당관계자는 "지역 여론을 감안할 때 당장 건축허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인사 청탁자 명단 공개' 강진군

이번엔 승진 대상자 정견 발표회

강진군이 인사 청탁자 명단 공개에 이어 승진 대상자의 정견(政見) 발표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진군은 15일 정례조회 뒤 5급 사무관과 농촌지도관 승진 대상자의 정견 발표회를 갖기로 했다.

승진 대상자들은 전 직원이 참석하고 읍·면 직원은 청내 방송을 통해 듣게 될 정견발표에서 자기 소개와 군정 추진에 대한 계획, 소신 등을 밝히게 된다. 이는 지방행정의 꽃이라 불리는 '사무관' 승진 과정에서 30%를 차지하는 다면평가를 앞두고 평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른바 '말 잘하는 사람'이 선택되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소리도 높다. 군은 정견 발표를 들은 뒤 무작위로 30명을 뽑아 다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승진 대상자는 행정직 3명과 농촌지도관 1명 등 4명이며 소견발표에는 12명이 참가한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 새얼굴 /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주력"

남도희 농촌공사 곡성지사장

"영농 선진화를 통한 친환경 농촌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남도희(55) 한국농촌공사 곡성지사장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선진농업 농촌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담양 출신인 남지사장은 지난 74년 한국농촌공사에 입사, 순천지사 유지관리팀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우경숙(54)씨와 1남2녀, 취미는 등산.

/곡성=김계중기자 kjkim@